

# 광주 중앙공원 개발사업 의혹... 아파트 세대수 늘려주기 '논란'

###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자 변경 업체만 세대수 증가 유일 검찰, 광주시 압수수색... 수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일 듯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가운데 업체가 뒤바뀐 2곳에만 아파트 세대수를 크게 늘려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사업자가 바뀐 중앙공원 1·2지구는 시민사회단체의 고발로 검찰이 광주시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곳이다.

특히 민간공원 1단계 사업지구(4개 공원)나 2단계 사업지구는 아파트 세대수가 줄거나 제자리인데도 중앙공원 1·2지구만 세대수가 늘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지구 안건을 심의해 우선협상 대상

자인 ㈜한양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한양 측은 애초 아파트 2천104세대를 266세대 늘어난 2천370세대로 하고 일부 대형 평수 분양가도 평당 2천만원대로 올리는 변경안을 제출했다. 업체 측은 800억원가량 금융부담이 증가했다며 세대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업체 측의 주장을 수용해 층수도 높이고 용적률도 기존의 164.71%에서 199.80%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광주시는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인 ㈜호반건설 측에도 원안보다 94세대를 늘어난 734세대로 허용한 것



광주 중앙공원 전경. /연합뉴스

로 확인됐다. 세대수가 94세대 늘면서 기존 178.3%인 용적률은 205.7%로 높아졌다. 공교롭게도 이들 2개 업체는 지난해 12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5개 공원 6개 지구 우선협상 대상자 가운데 '노른자위 부지'로 평가받은 중앙공원 1·2지구에서 탈락했다가 회생한 업체다.

중앙공원 2지구는 일부 업체로부터 부실평가 의혹이 제기되자 시 감사위원회가 특정 감사를 벌여 계약 평가 점수 적용 오류 등을 이유로 애초 금호산업주에서 2순

위인 ㈜호반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심사평가표 사전 유출, 재공도 생략 등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중앙공원 1지구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광주시도시공사가 선정됐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1순위 지위를 가진 반납하면서 뒤순위인 ㈜한양으로 넘어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가운데 이들 2곳 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준비 중인 중앙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곡(1천166세대)·운암산(734세대)·신용공원(265세대) 등 3곳은 애초 제안에서 세대수 증감 없이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는 심의 과정에서 4개 공원 모두 아파트 세대수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량공원은 1천285세대에서 964세대로(용적률 298.2%→219.8%), 마복공원은 1천272세대에서 999세대로(용적률

235.0%→219.5%), 송암공원은 2천542세대에서 2천6세대로(용적률 221.6%→219.8%), 봉산공원은 1천265세대에서 999세대로(용적률 219.8% 변동 없음) 각각 감소했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같은 면적의 부지에서 아파트를 적게는 수십 채에서 수백채 더 짓게 해주는 것은 그야말로 수십, 수백억원의 이권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했던 것처럼 시의 특례사업은 일부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는 특례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광주시에 특례사업 제안서 변경사항 전체 공개, 특례사업 분양원가 및 공사

원가 공개, 특례사업 검증 시스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 안전·편의 최적화 더 뉴 봉고III 출시

기아차가 안전성과 편의성 높이고 강화된 유로 6기준을 만족한 '더 뉴 봉고III'를 출시했다.

기아자동차(www.kia.com)는 지난 5일(목) 봉고III의 상품성 개선 모델인 더 뉴 봉고III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기아차 더 뉴 봉고III는 다양한 사업환경에서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급 유일의 1.2톤 모델과 LPI 엔진 타입을 보유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힌 것도 강점이다. /이문수 기자 zkj0000@

## '폐기물에서 의상으로 재탄생' ... 현대차, 뉴욕서 업사이클링 패션 데뷔

현대자동차가 전세계 경제와 패션의 중심지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폐기되는 자동차 가죽시트를 업사이클링해 제작한 의상을 공개하고, 글로벌 인플루언서들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사이클링(up-cycling)'이란 기존에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뜻한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6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 퍼블릭 호텔에서 '리스타일(Re:Style)'이라는 이름의 소규모 콜렉션을 열고, 뉴욕 기반 패션 브랜드 '제로+마리아 코르네호'와 함께 제작한 업사이클링 의상 15벌을 선보였다.

'리스타일(Re:Style)'은 최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자동차와 패션의 이색 협업을 통해 업사이클링 트렌드를 전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행사 명칭은 '다시 사용하고, 다시 생각하는, 새로운 스타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날 행사는 전세계 패션업계 종사자와 미디어들이 몰려드는 2020 봄·여름 뉴욕 패션위크 첫날에 개최돼, 미국 할



현대자동차는 지난 6일 미국 뉴욕 맨해튼 퍼블릭 호텔에서 '리스타일(Re:Style)'이라는 이름의 소규모 콜렉션을 열고, 뉴욕 기반 패션 브랜드 '제로+마리아 코르네호'와 함께 제작한 업사이클링 의상 15벌을 선보였다. /현대차 제공

패션브랜드와 협업해 폐기된 차시트가족 업사이클링한 의상 소규모 콜렉션서 공개  
사라 제시카 파커 등 할리우드 스타와 밀레니얼 대표 패션 인플루언서 300여 명 참석

리우드 배우와 TV스타 등의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밀레니얼 세대를 대표하는 패션 및 라이프 스타일 분야 인플루언서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미국 유명 드라마 섹스앤더시티의 주인공 '사라 제시카 파커(Sarah

Jessica Parker)'와 할리우드의 떠오르는 신예배우 '로인 블랜차드(Rowan Blanchard)', 전(前) 비욘세 스타일리

스트 '타이 헌터(Ty Hunter)' 등이 행사를 찾았다.

'제로+마리아 코르네호'의 대표 디자이너 마리아 코르네호는 "패션산업에서도 폐기되는 직물과 소재가 큰 이슈"라며 "자동차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문제를 패션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현대자동차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혁신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콜렉션을 위해 현대차는 지난 5월부터 미국 뉴욕에서 '제로+마리아 코르네호'와 협업해 의상을 제작했으며, 폐기되는 자동차 시트가죽은 부품 그룹사 '현대트랜시스'로부터 공급받았다.

이날 공개한 의상은 '버려지는 소재에 새로운 삶(Life Cycle)을 부여하자'라는 철학아래,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자연과의 조화'라는 콘셉트로 제작됐다.

특히 자동차 시트에 주요 사용되는 블랙, 다크 베이지, 화이트 컬러는 자갈과 모래, 눈 등 지구 본연의 색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의상의 핵심 컬러로 사용해 친환경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또 재활용 페트병에서 뽑아낸 재생섬유로 만든 업사이클링 티셔츠와 자동차 에어백으로 만든 토트백도 함께 공개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문수 기자 zkj0000@

### 보증서 담보로 특별자금 대출 광주은행, 1천억원 긴급 지원

광주은행은 '보증서 담보 특별자금 대출 신규자금' 1천억원을 편성해 12월 31일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지난 6을 밝혔다.

보증서 담보 특별대출 지원 한도는 업체당 보증서발급 금액 이내이고, 금리는 산출금리 대비 최대 1.2%P를 우대해 최저 2.8%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보증서 발급 기관은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다. /연합뉴스

로또 (875회)	
추첨일 : 2019년 9월 7일	
번호	19, 22, 30, 34, 39, 44 + 36
등위	금 액
1등	1,415,946,724원
2등	100,117,446원
3등	1,450,341원
4등	50,000원
5등	5,000원

**한국전력공사 KEPCO**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한국전력의 에너지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